

# 개혁주의 관점에서 본 찬양사역과 워십댄스

하 재 송

충신대학교, 교회음악과

## 1 서론

### 1.1 연구의 동기와 목적

지난 세기 말부터 한국교회는 예배에 있어서 매우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그것은 오랫동안 형식적인 면에서 큰 변화 없이 시행되어 온 전통적인 예배 양식의 틀이 깨어지고, 현 시대의 문화적 흐름을 반영하는 새로운 요소들이 예배 가운데에서 행해지게 된 것이다. 그러한 예배의 변화 중에서 오늘날 가장 보편화된 것은 “찬양과 경배”(Praise and Worship)<sup>1</sup>이다. 많은 교회에서 주일 오후 예배는 물론 이제는 주일 아침 예배에서도 회중들

\* 논문접수일: 2011. 1. 29

논문수정일: 2011. 2. 21

게재확정일: 2011. 3. 11

1 “찬양과 경배”(또는 “경배와 찬양”)는 보통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하나는 회중들의 찬양이 중심이 되는 현대적인 예배형태를 가리키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예배에서 사용

이 여러 곡을 다 함께 노래하는 “찬양과 경배” 순서를 채용하고 있다. 이러한 “찬양과 경배”는 일반적으로 “찬양팀”이라고 불려지는 음악 그룹에 의해 주도되는데, 이 그룹은 보통 찬양 인도자와 몇몇 노래하는 이들, 그리고 어쿠스틱 또는 일렉트릭 기타, 키보드, 드럼 등을 포함하는 악기 연주자들로 구성된다. 이 음악 그룹의 멤버들, 특히 찬양 인도자는 많은 교회에서 소위 “찬양사역자”로 지칭되는데, 일반적으로 찬양팀의 지도와 훈련까지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찬양사역자”라는 칭호 내지는 직책은 필자가 소속되어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 합동) 교단에서는 사실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 아울러 그렇게 찬양사역을 맡은 이가 신학적, 목회적 훈련을 받은 교역자가 아니라 평신도로서 주로 음악적인 재능에 기초하여 세워졌을 경우, 과연 예배의 한 부분을 맡아 인도할 수 있느냐 하는 논란이 있어 왔다. 더욱이 평신도 찬양사역자가 “찬양과 경배”를 인도하면서 예배 중에 적절치 못한 말을 즉흥적으로 하거나 찬양 인도 방법에 있어서 문제점을 노출했을 경우, 보다 심각한 논쟁이 야기되었다. 따라서 신학적이고 교회 음악적인 측면에서 “찬양사역”과 “찬양사역자”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그에 따른 실제적인 정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이러한 찬양사역의 논제와 더불어 최근 현대적인 예배 형식에서 점차 사용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워십댄스(worship dance)의 타당성에 관한 기본적인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한국 기독교의 문화적, 역사적 배경 속에서 다른 예술 분야들에 비해 춤에 대해서는 아직도 사람들의 인식의 편차가 매우 큰 형편이고, 현실적으로도 워십댄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혁주의 예배학적인 관점에서 그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적, 예배적 현실 속에서 본 연구에서는 “찬양사역과 워십댄스”에 대해 개혁주의적인 관점에서 고찰해 보고, 그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1.2 용어에 대한 이해

“찬양”이라는 용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아름답고 훌륭함을 기리고 드러냄”이다.<sup>2</sup> 기독교에서 이 용어는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모든 행위를 지칭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잭 테일러(Jack R. Taylor)는 그것을 “음성적, 청각적, 혹은 시각적인 방법으로 (이 중의 어떤 한 가지만, 또는 동시에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한다.<sup>3</sup> 제임스 드 중(James A. De Jong)은 그와 관련한 언급에서 성경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찬미하고 높이고 경배하며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주님께 축복드리고 주께 할렐루야 찬송을 드려야 할 것을 명하고 있다”고 말한다.<sup>4</sup> 성경은 이러한 “찬양”이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행해질 수 있음을 보여 주는데, 손을 들고(시 134:2), 손바닥을 치고(시 47:1), 기쁜 입술로(시 63:5), 음성으로(시 98:5), 노래로(시 28:7, 33:3), 즐거운 소리로(시 47:1), 방언을 말하며(행 10:46),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통소, 제금 등 여러 악기로(시 150:3-5), 지혜의 시로(시 47:7), 서서(대하 5:12; 시 134:1), 무릎을 꿇고(시 95:6),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느 8:6),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행 3:8), 춤추며(시 149:3), 영으로(고전 14:15), 마음으로(고전 14:15; 엡 5:19)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

---

되는 현대적이고 대중적인 회중 찬양곡들을 지칭한다. 이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은, 하재송, “찬양, 찬송, 찬양과 경배,” 『Choir & Organ』 101 (2009. 6): 60-61을 참고하라.

2 “찬양”의 의미에 대한 논의는, 하재송, “찬양, 찬송, 찬양과 경배,” 58-59를 참고하라.

3 Jack R. Taylor, *The Hallelujah Factor*, 이석철 역, 『찬양 중에 거하시느 하나님』 (서울: 요단출판사, 1985), 23. 이 책은 찬양에 대해 성경적으로, 어원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실제적인 측면에서 고찰한 것으로 교회음악에 관한 여러 국내 저서들과 논문들에서 매우 비중 있게 인용되어 온 저서들 중의 하나이다.

4 James A. De Jong, *Into His Presence: Perspectives on Reformed Worship*, 황규일 역, 『개혁주의 예배』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19.

고 있다.<sup>5</sup>

“사역” 또는 “사역자”라는 용어는 한글 개역개정판에 9회 나타나는데, 열왕기상 5:16, 시편 104:4, 이사야 28:21, 사도행전 6:4와 21:19, 로마서 13:4, 고린도전서 3:5와 12:6, 히브리서 1:7 등에서 사용되었다. 영어 성경(NIV)에 보면, 해당 구절들에서 “사역”에 해당하는 단어는 “work” 또는 “ministry”로, “사역자”에 대하여는 “servant”로 번역하였는데,<sup>6</sup> 원어적으로 그 기본적인 의미는 종이 주인을 섬기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섬김, 봉사의 뜻을 지니고 있다.<sup>7</sup> 한국 교회에서 “사역”이라는 용어는 “예배 사역,” “말씀 사역,” “찬양 사역,” “전도 사역,” “구제 사역,” “선교 사역,” “병원 사역,” “장애인 사역” 등의 용례에서 보듯이 일반적으로 하나님, 교회,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지칭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용어는 “섬김,” “봉사”라는 기본적인 정신, 자세, 태도보다 일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더 많이 인식되고 있는 듯하다.

한편에서는 특별히 “찬양 사역”에 대해 그 용어 자체가 성경적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사실 “찬양”과 “사역”이라는 단어들은 충분한 성경적 근거들을 갖고 있으므로 용어 사용에 대해 신학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과연 “찬양 사역”이 “사역”의 어원적이고 본질적인 의미에 맞게 섬김

5 Bob Sorge, *Exploring Worship: A Practical Guide to Praise and Worship*, 최혁 역, 『찬양으로 가슴 벅찬 예배』(서울: 두란노, 1997), 36-49도 참조하라.

6 예컨대,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시라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work)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work)이 기이할 것임이라”(사 28:21);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ministry)에 힘쓰리라 하니”(행 6:4);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나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servants)들이니라”(고전 3:5).

7 사 28:21의 “사역”이라는 말은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아바드(אָבַד)에서 유래한 것이며, 신약에서의 “사역,” “사역자”라는 용어 역시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동사 디아코네오(διακονέω)와 관련된 것이다.

과 봉사의 마음과 태도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사역의 실재에 관한 문제인데, 만약 “찬양 사역”이 섬김의 자세가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주장하고 강요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문제인 것이다.

“워십댄스”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춤이라고 이해된다. 그리고 “춤”의 사전적인 의미는 “장단에 맞추거나 흥에 겨워 팔다리와 몸을 율동적으로 움직여 뛰노는 동작”을 말한다. 한글 개역개정판에 “춤”에 대한 언급은 27회 나타나는데, 구약에서 춤은 대체로 기쁨과 즐거움의 자연스러운 표현이었으며(출 15:20, 삿 11:34, 삼상 18:6, 삼하 6:14, 시 30:11, 전 3:4, 렘 31:4, 13),<sup>8</sup> 삶의 한 부분이었다(삿 21:21, 23). 더욱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춤춘 것에 대한 기록(삼하 6:12-23, 대상 15:29)을 보면,<sup>9</sup> 하나님께서 다윗의 춤을 기뻐하셨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즉 구약에서는 춤을 나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대체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신약에서 춤을 언급한 구절들의 경우(마 11:17, 14:6, 막 6:22, 눅 7:32, 15:25)에서도 춤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는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춤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아야 하는가? 어느 정도 예술작품으로서의 형태를 갖춘 “무용”만을 춤으로 볼 것인가? 어린 아이들이 노래에 맞추어 율동을 하는 것도 춤이라고 할 수 있는가? 또한 지극히

---

8 대표적으로,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출 15:20);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삼상 18:6); “그 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렘 31:13)는 구절들을 참고하라.

9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 때에 다윗이 베 에봇을 입었더라”(삼하 6:14)

단순한 동작만을 반복하는 것, 또는 기쁨으로 뛰노는 것도 춤으로 볼 수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성경은 어떤 특정한 춤의 형태 또는 방식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것이 춤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도 않는다. 단지 성경은 많은 경우에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몸의 어떤 동작들로 자연스럽게 다소 즉흥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춤이라고 부른다. 물론 마태복음 14:6과 마가복음 6:22에 기록되어 있는 “헤로디아의 딸”의 춤은 특별히 잘 준비된 춤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종류의 춤이었는지 성경은 자세히 언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성경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기준에 따라 춤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허용하는 듯하다. 그리고 그러한 판단에는 시대, 상황, 지역, 사회, 문화, 연령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2 예술에 대한 개혁주의적 입장

찬양사역과 워십댄스에 관한 논의를 진행시켜 나가기 전에 먼저 그러한 전문적인 영역을 포함하는 예술 전반에 대한 개혁주의적 입장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혁주의의 근간이 되는 칼빈의 기본 사상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롬 11:36)이라는 성경 말씀에 잘 드러나 있듯이, 철저한 하나님 중심 사상이다. 이러한 하나님 중심 사상에는 “만물,” 즉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 즉 단순히 신학 사상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예술, 과학 등 전 영역이 그 사상 체계 안에 포함된다.<sup>10</sup>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죄로 오염되었고, 모든 영역에서 죄로 인한

---

10 H. Henry Meeter, *Calvinism*, 박윤선, 김진홍 공역, 『칼빈주의』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86), 14.

왜곡과 부패가 넘치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개혁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만물이 올바르게 회복되어 그 본래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소망하며, 그것을 지향한다. 헨리 미터(H. Henry Meeter)가 언급한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피조세계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발휘시켜서 우리가 결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고상한 단계로 발전시키실 것이다.”<sup>11</sup>

예술의 궁극적인 목적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는 “모든 자유스러운 예술에 있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건 그렇지 않건 간에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sup>12</sup>고 말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술적인 재능을 부여받은 사람은, 달란트의 비유(마 25:14-30)에서 보여주듯이, 그 재능을 잘 사용하여 그 결실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한스 로크마커(H. R. Rookmaaker, 1922-1977)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의미를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의 사용과 연결시키면서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함은 그가 인간성을 지니게 되었음을, 즉 하나님의 창조계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누어주신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자유를 향유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예술적 재능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sup>13</sup>

---

11 Meeter, 『칼빈주의』, 67.

12 Abraham Kuyper, *Lectures on Calvinism*, 박영남 역, 『칼빈주의』(서울: 세종문화사, 1986), 202.

13 H. R. Rookmaaker, *Art Needs No Justification*, 김현수 역, 『기독교와 현대 예술』(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87), 28. 로크마커는 예술을 작가의 감정 표현이 아니라 종교적 표현으로 보고, 예술을 기독교적으로 이해한 세계적인 학자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로크마커는 그에 대해 말하기를, “예술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것이므로, 그 분께 대한 순종과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 가운데서 그분을 통하여, 즉 그가 주신 재능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써 우리는 예술을 하나님께 다시 헌상하는 것이다.”<sup>14</sup>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로크마커에 따르면, “그리스도인 예술가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행위와 동료에 대한 사랑의 봉사로서,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자신의 소명임을 자각한다는 것이다.”<sup>15</sup>

그리스도인 예술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십자가의 원리 안에서 그의 예술적 재능을 사용하여 예술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만들어진 기독교 예술은 몇 가지 특징을 나타내야 한다. 프란시스 쉐퍼(Francis A. Schaeffer, 1912-1984)는 그러한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한다.<sup>16</sup> 첫째, 기독교 예술은 동시대적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예술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기 마련이고 동시대적인 예술 언어를 사용해야 그것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기독교 예술은 지역에 따라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예술은 일차적으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지역 문화에 따라 다소 다른 양식과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셋째, 기독교 예술인의 작품은 기독교 세계관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한다. 예술가는 자신이 상상하고 경험하고 바라보는 세계를 자신의 관점으로 표현하기 마련이고, 따라서 기독교 예술가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경험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나타내야 한다는

---

14 Rookmaaker, 『기독교와 현대 예술』, 51.

15 Rookmaaker, 『기독교와 현대 예술』, 44-45.

16 Francis A. Schaeffer, *Art and the Bible*, 김진홍 역, 『예술과 성경』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5), 50-51 참조.



것이다. 여기에서 쉼퍼는 예술 작업에 있어서 현대적인 예술 형식을 사용할 때, “그것이 우리의 독특한 기독교 세계관을 왜곡하지 못하게 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어떤 면에서 표현양식은 전적으로 중립적”이지만, “그 양식을 생각 없이 순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sup>17</sup>는 것이다.

개혁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문화의 변혁을 지향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기독교는 이 복음을 통한 변화와 갱신을 믿으며, 복음의 능력이 예술을 변화시키며 새롭게 한다고 믿는다. 로크마커는 기독교와 예술의 갱신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기독교의 진수는 삶을 갱신시키는 데 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는 예술의 갱신에도 관여한다. 기독교는 것처럼 예술의 갱신을 담당함으로써 예술의 타당성을 증시(證示)한다. 예술은 그 자체가 곧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의 정서나 감정, 또 그것과 뿔레야 뿔 수 없는 미적인 감각 등을 포함해 기독교적 정신의 한 표출 방식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 또 인간성이라는 것이 진정 어떠한 것인가를 몸소 드러내야 할 소임이 있다.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증시하는 일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달려 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의 전 존재 영역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sup>18</sup>

결국 그리스도인은 죄로 인해 오염된 예술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그것으로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인간에게 주신 예술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길이다. 따라서 찬양사역과 워십댄스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음악과 춤이라는 예술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 다시

17 Schaeffer, 『예술과 성경』, 55.

18 H. R. Rookmaaker, *Modern Art and the Death of a Culture*, 김유리 역, 『현대예술과 문화의 죽음』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3), 285.

돌려드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하게 드러내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3 개혁주의 예배의 원리

그렇다면, 개혁주의 예배 안에서 찬양사역과 워십댄스가 가능한가? 이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개혁주의 예배의 원리에 관해 살펴보고, 역사적으로 개혁주의 예배가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그러한 예배학적, 역사적 사실들에 근거하여 그것들의 가능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 3.1 예배의 기본적인 원리

개혁주의는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sup>19</sup>임을 믿는다. 따라서 예배에 있어서도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예배의 절대적이며 기본적인 기준이 된다. 개혁주의 신앙고백의 가장 중요한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은 예배가 성경에 근거해야 함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제1장. 성경에 관하여” 6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교회 정치에 관하여서도 항상 지켜야 될 말씀의 일반 법칙에 따라 본래의 이성과 그리스도인의 식별에 의해 처리되어야 할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sup>20</sup>라고 하였고, “제21장.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1항에서는

19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다. 김의환 편역, 『개혁주의 신앙고백집』(서울: 생명의말씀사, 1984), 75.

20 김의환 편역, 『개혁주의 신앙고백집』, 19-20.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 제정되었고 그분 자신의 계시하신 뜻에 의해 제한되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망상이나 고안이나 사단의 지시에 따라 어떤 가견적 예배 대상 앞에 혹은 성경에 말씀하지 않은 방법으로 예배드리면 안 된다.”<sup>21</sup>고 하였다.

개혁주의 예배의 또 다른 중요한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드 중은 말하기를, “예배를 하나로 묶어 주는 것은 예배의 일반적인 구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이름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중보자이시다.”<sup>22</sup>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드 중은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드려지는 예배만이 참 예배”<sup>23</sup>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개혁주의 예배의 성격에 대하여 그는 예배는 성경적(biblical), 보편적(universal), 신앙고백적(confessional), 회중적(congregational)이어야 한다고 정리하였다.<sup>24</sup>

### 3.2 예배의 요소들

기독교 예배는 기본적으로 기도, 죄의 고백과 죄사함, 찬양, 설교, 세례, 교제 등의 요소들을 포함한다. 그리고 성경은 그러한 요소들에 대해 충분한 근거들을 제공한다.<sup>25</sup> 이렇게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을 개혁주의 예배학에서는 “규정하는 원리”<sup>26</sup>라고 부른다. 그런데, “성경에서 규정하

21 김의환 편역, 『개혁주의 신앙고백집』, 52.

22 De Jong, 『개혁주의 예배』, 11.

23 De Jong, 『개혁주의 예배』, 10.

24 De Jong, 『개혁주의 예배』, 41-42 참조.

25 De Jong, 『개혁주의 예배』, 11.

는 원리란 주로 교회의 권세나 공식적으로 교회가 승인한 예배모임에 대한 교리인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예배에 관한 교리이며, 모든 형태의 예배에 관한 교리인 것이다.”<sup>27</sup>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1장 5항은 성경에 규정된 개혁주의 예배의 요소들에 대해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경건한 경의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 건전한 설교와 이해 및 신앙과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는 것과 마음에 감사함으로 시를 부르는 것과 또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례를 바로 거행하며 합당하게 받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일반적 예배의 부분이다. 이외에 종교적 맹세와 서원과 엄숙한 금식과 특별한 때를 따라 드리는 감사 등이 있으니 이것은 여러 때와 절기에 따라 기록하고 신령한 태도로 해야 한다.<sup>28</sup>

그런데, 이 “규정하는 원리”를 따를 때, 그것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할 수 있는 것들을 제한하기도 하지만, 또한 그것은 다른 종류의 적용들을 허용하며, 따라서 상당한 영역에서의 자유를 허락해준다.” 그리하여 “서로 다른 교회들은 적법하게 하나님의 명령들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예컨대, 찬송하라는 명령에 대해 “어떤 교회는 주로 전통적인 찬송만을” 부르고자 하는 반면, “다른 교회는 현대적인 찬송을” 부르려고 할 수 있는 것이다.<sup>29</sup> 한편, 성경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든 요소들에 대해 각각 독립적으로 구체적인 언급을 제공하지 않는다. 즉 예배의 어떤 요소들에 대하여는 성경에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경우들이 있다. 그렇다면, 어떻

26 John M. Frame, *Worship in Spirit and Truth*, 김광열 역,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0), 75

27 Frame,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85.

28 김의환 편역, 『개혁주의 신앙고백집』, 53-54.

29 Frame,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86.

게 그러한 요소들이 예배에 포함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개혁주의적 대답은 “어떠한 부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적합한 것이 되려면, 성경이 그것을 긍정적으로 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sup>30</sup>는 것이다. 존 프레임(John M. Frame)은 그러한 개혁주의적 원리들에 기초하여 성경적인 예배의 요소들을 열거하였는데, 문안과 축도, 성경봉독, 설교와 가르침, 은사적인 예언과 방언 말함, 기도, 찬송, 맹세, 신앙 고백, 성례, 교회권징, 헌금과 헌물, 교제의 표현들 등이 그것들이다.<sup>31</sup>

### 3.3 예배 순서와 형식의 변화

개혁주의의 명제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는 것이다. 따라서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예배가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개혁되고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카톨릭 예전에 대한 반성 속에서 칼빈(John Calvin, 1509-1564)은 예배에 있어서 두 가지 목표를 세웠는데, “첫째는 매주 예배에서 성만찬이 초기의 단순성과 조화를 되찾도록 하는 것이었으며, 둘째는 예배에서 성경말씀의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었다.”<sup>32</sup> 이러한 칼빈의 예배 개혁은 결과적으로 중세에 지나치게 확대된 성만찬을 단순하게 하고, 설교를 더욱 강조하는 개혁주의적 예배 의식의 형성을 가져왔다. 아울러 개혁주의 예배에 있어서 매우 특징적인 요소가 포함되었는데, 그것은 성경 봉독 전에 행해지는 성령의 조명을 위한 기도(Prayer for Illumination)였다.<sup>33</sup> 그리고 역사적으로 개

30 Frame,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74.

31 Frame,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97-104.

32 William D. Maxwell, *A History of Christian Worship: An Outline of Its Development and Forms*, 정장복 역, 『예배의 발전과 그 형태』 (서울: 쿰란출판사, 1996), 154.

33 James F. White, *Protestant Worship*, 김석한 역, 『개신교 예배』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혁주의 전통은 다른 어떤 전통보다 회개적인 경건을 장려하였다.<sup>34</sup> 이러한 개혁주의 예배의 초기의 두 가지 중요한 실례는 칼빈의 “교회예배모범”(The Form of Church Prayers, 1542)과 “웨스트민스터 공중예배 지침서”(The Westminster Directory of Public Worship, 1645)에 나타난다.<sup>35</sup>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예장 합동 교단의 헌법은 정치, 제7장에서 “교회 예배 의식”에 대해 “교회는 마땅히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설립하신 예배 의식을 준수할지니 그 예식은 아래와 같다. 기도, 찬송, 성경 낭독, 성경 해석과 강도, 세례, 성찬, 금식과 감사, 성경 문답, 헌금, 권징, 축복.”<sup>36</sup>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예배의 요소들과 대체적인 형식을 명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적 규칙, 제4조 “주일 예배회” 1항에서는 “중용히 묵도로 예배를 시작하며 단정하고 경건한 태도로 엄숙히 예배하여야 한다.”<sup>37</sup>고 하여 묵도로 예배를 시작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또한 예배모범, 제6장 “강도” 5항에서는 “강도를 마친 후에는 목사가 기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그 다음에는 시나 찬미를 부르고 하나님을 대표하여 축복 기도로 폐회함이 옳다.”<sup>38</sup>고 하여 강도 이후의 예배 순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예장 합동 교단의 예배 의식은 사실 1542년의 칼빈의 예전과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는데, 두 예전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sup>39</sup>

---

2002), 109.

34 White, 『개신교 예배』, 121.

35 De Jong, 『개혁주의 예배』, 14. 같은 책 25 페이지에는 두 예전의 순서와 내용을 비교해 놓은 표가 있다. 칼빈의 예전은 “스위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등 유럽의 모든 곳에서 칼빈주의 예배의 모범이 되었다.” Donald P. Hustad, *Jubilate II: Church Music in Worship and Renewal* (Carol Stream, IL: Hope Publishing Company, 1993), 191.

36 『헌법』, 개정판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00), 161.

37 『헌법』, 198.

38 『헌법』, 247-248.

칼빈의 예전(1542년)	예장 합동 교단의 표준 예배의식
예배에의 부름(시 124:8)	묵도
죄의 고백	기원
용서를 위한 기도	예배찬송
운율 시편가	성시교독
성령의 조명을 위한 기도	신앙고백
성경봉독	찬송
설교	기도
헌금	성경봉독
중재 기도	찬양
주기도문 해설	설교
성물준비(사도신경을 노래함)	기도
성찬 제정문	찬송
권면	헌금
성찬기도	교회소식
분병분잔	찬송
성찬참여(시편이나 성경당독)	축도
성찬 후 기도	폐회
아론의 축도	성도의 교제

위의 표에서 보듯이, 개혁주의 예배의 모범이 된 칼빈의 예전에서 중요했던 요소들인 개회 성구(시 124:8), 죄의 고백과 용서를 위한 기도, 운율 시편가, 주기도문 해설 등은 오늘날 예배의식에서 거의 사라지고 없다. 칼빈은 성찬을 강조하여 매주 성찬식을 행하기를 원했지만, 오늘날 성찬식을 매주 행하는 교회는 별로 없다. 반면에 성경봉독과 설교는 여전히 개혁주의 예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한국 개신교의 예배 형식은 미국교회의 영향을 크게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한국 개신교가 미국 선교사들의 선교 사역으로 시작되었고, 미국교회의 영향권 안에서 계속해서 발전해 왔기 때문이다. 예배

39 칼빈의 예전에 대하여는 Hustad, *Jubilate II*, 192와 Maxwell, 『예배의 발전과 그 형태』, 156-157을 참조하고, 예장 합동 교단 예배의식은 『표준예식서』(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993, 개정판), 21을 참조하라.

의식에 있어서 초기 미국 선교사들은 당시 미국교회의 예배 형식을 차용했다고 생각되는데, 이는 아래에 예시된 20세기 초 미국의 비예전적인 교회에서 사용된 보다 전형적인 공식 예배 순서<sup>40</sup>가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예배 형식과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오르간 전주곡

개회 찬송(입장송) 또는 영광송(Doxology)

예배에의 부름(종종 합창)

기원

(응답)

찬송

성경 봉독(회중이 참여)

(응답) 또는 삼위영가(Gloria Patri)

목회 기도

주의 기도, 그리고/또는 응답

사도신경

찬양

봉헌송(합창 또는 기악)

(봉헌 기도에 대한 응답)

찬송

설교

찬송

축도

(응답)

오르간 후주곡

이러한 역사적인 관찰을 토대로 신국원은 조기연의 견해에 기초하여

---

40 Hustad, *Jubilate II*, 255.



“한국교회의 전통적 예배는 성경과 초대교회 전통에 근원을 두고 있기 보다는 종교개혁과 19세기 미국의 ‘개척자 예배’와 부흥운동에서 비롯된 예배 형식의 영향을 받았다”<sup>41</sup>고 말한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개혁주의 예배는 시대와 상황, 지역, 문화적 상황 등에 따라 계속 변화해 왔다. 물론 예배의 기본적인 원리와 정신, 그 의미와 같은 본질적인 부분은 변화되지 않고 지켜졌지만, 그것을 구현하는 방식과 형태는 시대마다, 지역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마다 다소 다른 모습을 띠었다. 예컨대, 예배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칼빈은 시편 124:8,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와 이름에 있도다”라는 말씀으로 나아갔지만, 역사적인 변천 속에서 성도들이 다 함께 입례송을 부르며 나아가기도 했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예배에서처럼 찬양대의 입례송과 함께 목도로 나아가기도 했다. 따라서 개혁주의적 전통에서 예배의 순서와 형식의 변화는 일면 자연스러운 것이며, 그러한 형식상의 변화를 통해 개혁주의 예배가 지금까지 발전해온 것이다. 그리고 예장 합동 교단의 표준 예배의식 역시 그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전통에서 성경에 규정된 원리에 근거하면서 각 교회 현실에 맞게 예배 형식을 조정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견지에서 찬양사역과 워십댄스를 예배에서 한 순서로서 채용하는 것 자체를 잘못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4 예배음악과 워십댄스

---

41 신국원, “21세기 문화와 예배 갱신: 현상적 특성과 신학적 기초,” 「신앙과 학문」 12 (2007. 4): 72. 19세기 말 미국의 복음전도 운동에서 드러진 예배는, 찬송과 기타 음악, 기도, 환영과 광고, 특별 음악(성가대, 독창, 또는 작은 앙상블), 헌금, 독창, 설교, 초청(종종 찬송과 함께 길어짐), 폐회(축도)의 순서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현대적인 예배 형식인 “찬양과 경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Hustad, *Jubilate II*, 221 참조.

#### 4.1 예배음악의 변화

예배 형식의 변화와 예배음악의 변화는 시대적, 신학적, 의식적 변화를 반영한다. 칼빈의 경우, 회중들이 자국어로 부르는 운율 시편가를 매우 중요한 예배 요소로 강조했는데, 이는 예배에서 회중들이 그들의 언어로 된 노래로 그들의 신앙을 직접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바람직하며, 그 가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신학적 사고의 산물이다. 그러나 후에 칼빈주의자이며 대표적인 찬송 작가인 아이작 와츠(Issac Watts, 1674-1748)는 “기독교 노래는 노래하는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해야 한다,”<sup>42</sup> “시편이 기독교 예배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기독교화되어야 한다”<sup>43</sup>고 주장하였고,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찬송가의 필요성과 효용성에 대한 여러 주장들이 점차 설득력을 얻으면서, 그리고 회중들이 그러한 찬송가를 선호하게 되면서, 운율 시편가는 17세기 말부터 쇠퇴하기 시작하여 18세기에는 찬송가에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되었다. 그리하여 “19세기 중반에 영국 국교회에 찬송가가 수용됨과 거의 동시에 대부분의 장로교회들도 찬송가를 수용”<sup>44</sup>하게 되었다. 제임스 화이트(James F. White)는 예배 음악에 있어서의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면서 그에 대한 평가를 덧붙인다.

19세기에 파이프 오르간이 점점 도입되고, 심지어 쥘리히에까지도 도입됨에 따라 악기 음악은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 부흥회 운동은 합창단의 사용을 장려했고, 결국 이 합창단들은 완전한 성가대가 되었다. 비록 장로교

---

42 William J. Reynolds and Milburn Price, *A Survey of Christian Hymnody* (Carol Stream, IL: Hope Publishing Company, 1987), 45.

43 Reynolds and Price, *A Survey of Christian Hymnody*, 47.

44 White, 『개신교 예배』, 124.

회 성가대는 존 낙스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19세기말에 이르렀을 때는 일반적이 되었다. 이 결과는 개혁파 예배 의식들의 회복으로 이어진 복고주의와 대립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개혁파들이 참지 못할 일, 즉 성가대의 찬송을 듣는 수동적인 참여를 추가했기 때문이다. 개혁파 예배는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동시에 다른 전통들로부터 차용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sup>45</sup>

19세기 후반 미국에서는 복음전도 운동과 함께 복음성가(Gospel Song)라는 대중적인 교회음악이 등장하였는데, 이 복음성가는 당시 탁월한 음악지도자였던 블리스(Philip P. Bliss, 1838-1876)와 복음전도에 열심이었던 가수 필립스(Philip Phillips, 1834-1895)에 의해 기독교인들에게 보급되기 시작했으며, 위대한 복음전도자였던 무디(Dwight Lyman Moody, 1837-1899)와 그의 음악적 동역자였던 생키(Ira David Sankey, 1840-1908)의 복음전도 운동을 통해 크게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많은 복음성가가 자연히 미국의 개신교 찬송가에 포함되었고,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우리나라에 소개된 그러한 찬송들은 초기의 한국 찬송가들로부터 현행 찬송가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sup>46</sup>

한편, 가스펠 음악의 흐름 속에서 1960년대 말 미국 서쪽 연안에서는 새로운 양식의 대중적인 교회음악이 출현했는데, 당시 일반 대중음악이었던 포크(folk), 팝(pop), 록(rock), 리듬 앤드 블루스(rhythm and blues, R&B), 소울(Soul) 등의 음악형식을 취한 이 현대적이며 대중음악적인 교회음악이 바로 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다.<sup>47</sup> 이 CCM은 독창 또는 중창 위

45 White, 『개신교 예배』, 124-125.

46 예를 들어, 현행 『새찬송가』에는 블리스의 찬송만해도 161, 200, 202, 267, 298, 510, 520장 등 7곡이나 수록되어 있다.

47 CCM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은, 하재송, “대중적인 교회음악: 복음성가와 CCM (2),” 『Choir & Organ』 104 (2009. 9): 60-63을 참조하라.

주의 노래로서 많은 기독교인 가수들에 의해 보급되고 발전되었으며, 그에 따라 기독교 대중음악 산업이 급속히 발달했다. 그리고 이러한 CCM의 흐름 속에서 회중찬양적인 요소가 강조되면서 발전한 것이 “찬양과 경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YWCA 강당에서 시작된 예수전도단의 화요 찬양모임과 1987년 2월 시작된 두란노 목요 찬양모임을 통해 그러한 노래들과 예배 양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리하여 몇몇 “찬양과 경배” 곡들은 개정된 찬송가에도 포함되기에 이르렀으며,<sup>48</sup> 오늘날 한국교회 예배에서는 전통적인 오르간 음악과 찬양대 음악, 복음성가를 포함한 기존의 찬송가, 독창 중심의 CCM, 찬양과 경배 음악이 함께 사용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런데, 예장 합동 교단 헌법, 예배모범, 제4장 “시와 찬송” 3항에서는 “공식 예배 때에 찬송은 찬송가에 한하여, 찬송하는 시간의 다소는 목사가 조심히여 정할 것이나 아무쪼록 적당하게 하여 교인 전체로 찬송하는 실력을 얻게 함이 옳다.”<sup>49</sup>고 규정하고 있다. 공식 예배 때에 부르는 회중찬송을 찬송가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찬송가란 공인된 찬송가집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렇다면 찬송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찬양과 경배” 곡들을 예배 중에 부르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즉 법적인 규정과 예배 현실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위에 간략히 언급한 찬송가의 역사와 일반 역사에서 얻게 되는 일반적인 교훈은 현실에 그다지 맞지 않는 규정을 가지고 현실을 속박하기 보다는 법적인 정신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손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즉 성경적인 원리에 근거하면서도 시대적이고 문화

48 “예수 우리 왕이여”(38), “주를 경배하리”(616), “찬양하라 내 영혼아”(621) 등이 그 예들이다.

49 『헌법』, 243-244.

적인 상황과 교회 현실에 맞게 예배모범을 고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로크 마커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세계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변해 가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점과 시대적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끊임없이 재적용하면서, 오늘에 필요한 진리와 미를 모색하는 일은 우리의 몫이다.”<sup>50</sup>라고 강조했다. 예배에 있어서도 동일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찬양과 경배 곡들을 예배 시간에 자유롭게 사용해도 되는가? 결코 아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검증된 찬송가와 달리 대부분의 “찬양과 경배” 곡들은 공식적인 검증절차 없이 대체로 “찬양사역자”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선택되어 예배 중에 노래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또는 음악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될 위험성을 늘 안고 있다. 또한 새로운 “찬양과 경배” 곡들을 예배 시간에 부르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음악적인 실험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예배음악으로서의 적합성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선곡자가 나름대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말바 돈(Marva J. Dawn)은 그에 관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sup>51</sup> 첫째, 가사가 신학적으로 건전한가? 둘째, 음악의 스타일이 어떤 식으로든 예배를 혼란스럽게 하지는 않는가? 셋째, 그 곡이 회중에게 그리고 예배에서의 기능면에서 적절한가? 마지막으로, 그 음악이 만족할 정도로 훌륭한가? 이와 같은 기준들에 비추어 찬양 담당자는 신학적으로, 음악적으로, 기능적으로, 질적으로 예배에 적합한 곡들을 신중하게 선택하여 예배 중에 적절하게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50 Rookmaaker, 『현대예술과 문화의 죽음』, 306.

51 Marva J. Dawn, *Reaching Out without Dumbing Down*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5), 202.

## 4.2 찬양인도자의 자격

앞서 서론에 언급되었듯이, 평신도 찬양사역자에게 예배의 한 부분인 “찬양과 경배” 인도를 맡길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제기가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성경은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는다. 즉 누가 예배를 인도할 수 있고, 누가 할 수 없는지에 대해 성경은 침묵하고 있다. 그러나 복음서에 보면 당시 율법사나 유대교 지도자가 아니었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시고 가르치셨다는 기록들이 있고,<sup>52</sup> 평신도 중심의 회당 예배의 전통이 기독교 예배의 기초가 된 것을 생각하면 예배 안에서 평신도의 지도자적인 역할을 아주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더욱이 고린도전서 14:26,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는 말씀을 보면 신약 교회의 예배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sup>53</sup>

한편, 개혁주의의 만인 제사장 교리<sup>54</sup>는 모든 성도가 주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직접 예배할 수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평신도 인도자를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신학적으로도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또한 역사적으로 16세기 후반이나 17세기 초반 스위스나 독일, 또는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예배에서는 오늘날 “찬양과 경배”에서처럼 찬양인도자의 역할이 중요했음을 보게 되는데, 드 좋은 그에 관해 이렇게 언급한다. “예배 초기에는 노래 인도자가 찬양의 시편을 공포할 것이다. 그는 말과 멜

---

52 마 4:23,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눅 4:16,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53 Frame,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109.

54 그 성경적인 근거는 벰전 2:9, 계 5:10 등이다.

로디를 한 줄 한 줄씩 노래 부를 것이다. 우리는 그를 따라 한 줄씩 따라 부를 것이다.”<sup>55</sup>

그렇다면, 예장 합동 교단의 법적인 규정은 어떠한가? 일단 그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교단 헌법에 명시된 것은 없다. 따라서 예배 인도와 관련하여 보다 의미 있는 몇몇 규정들을 살펴봄으로써 그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을 도출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먼저 예배모범 제2장 “교회의 예배 의식” 2항에는 “유년 예배회로 따로 모일 때는 당회원이 반드시 출석 인도하라”<sup>56</sup>고 지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배 인도자는 당회원이어야 한다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예배모범 제3장 “예배 때 성경 봉독” 1항에는 “예배 때에 성경 봉독은 공식 예배의 한 부분이니 반드시 목사나 그 밖의 허락을 받은 사람이 봉독한다.”<sup>57</sup>고 되어 있어 “그 밖의 허락을 받은 사람”이 “공식 예배의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또한 예배모범 제8장 “기도회” 1항에서도 “이와 같은회는 목사나 당회 회원이나 혹은 교회에 상당한 자격이 있는 형제가 인도할지니”<sup>58</sup>라고 지시하고 있어 목사나 당회 회원 이외에 “교회에 상당한 자격이 있는 형제”가 수요기도회 등을 인도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예배 인도는 목사나 당회 회원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회에 상당한 자격이 있는 형제”로서 목사의 “허락을 받은 사람”은 예배의 한 부분 또는 기도회 전체를 인도할 수 있는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따라서 평신도 찬양사역자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상당한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여 예배의 한 부분을 담당하도록 위임하였다면, 일단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

55 De Jong, 『개혁주의 예배』, 130.

56 『헌법』, 242.

57 『헌법』, 243.

58 『헌법』, 249.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시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예배 인도를 위한 조건으로서의 “상당한 자격”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요구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기준은 개교회의 사정과 필요에 따라, 그리고 목사의 판단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단지 음악적인 재능만을 고려하여 찬양인도자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찬양과 예배는 음악적인 탁월함보다 “영과 진리로”(요 4:24) 드러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찬양인도자에게 더욱 요구되는 것은 음악적인 능력보다 영적이고 신앙적인 성숙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적인 요구는 예장 합동 교단의 헌법적 규칙, 제4조 “주일 예배회” 2항 “이상한 동작과 경건하지 못한 태도로 찬송이나 찬양을 인도하여 예배의 신성함을 감손하게 하지 말 것”<sup>59</sup>이라는 조항과 예배모범, 제4장 “시와 찬송” 1항 “성경에 합한 말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언사를 사용하라.”<sup>60</sup>는 규정에도 잘 나타나 있다. 로크마커도 지적하였듯이,<sup>61</sup> 바울이 빌립보서 4:8에서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권면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 특히 찬양인도자들에게 필요한 규범이며, 그들이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인 것이다.

### 4.3 워십댄스의 사용

59 『헌법』, 198.

60 『헌법』, 243.

61 Rookmaaker, 『현대예술과 문화의 죽음』, 294-303 참조.



앞서 필자는 예술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서 그리스도인은 죄악으로 오염된 예술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개혁주의적 입장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러한 예술의 영역에는 물론 춤도 포함된다. 따라서 음악과 마찬가지로 예술로서의 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예배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카이퍼는 “교회는 확실히 예술을 사용해도 되고 사용해야 한다. 그것을 과소평가하거나 열등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보다 심각하게 그것을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고귀한 선물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술의 사용은 결코 예배의 목적 이상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각각의 선물은 신자들의 집회에서 하나님께 제물로서 드려져야만 한다.”고 강조하였다.<sup>62</sup>

프레임이 지적하였듯이, 하나님께서는 회당에서의 정기적인 예배나 회막 또는 성전에서의 정기적인 예배에서 춤을 추라고 구체적으로 명하시지는 않았다.<sup>63</sup>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면서 춤추는 것을 승인하셨으며(출 15:20, 삼상 21:11, 29:5, 삼하 6:14, 시 30:11, 렘 31:13),<sup>64</sup> 더 나아가서 시편 149:3과 150:4에서는 춤추며 찬양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다. 프레임은 여기에서 시편 150:4를 이렇게 해석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그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춤추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모이는 때마다 그렇게 할 것을 원하시지는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춤은 “예배의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때때로 예배의 풍성함을 제공해주는 것이다”라고 말한다.<sup>65</sup> 또한 “예배

---

62 Abraham Kuyper, *Our Worship*, ed. Harry Boonstra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9), 53.

63 Frame,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199.

64 Frame,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198.

65 Frame,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199.

에서의 춤이란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공유하는 거룩한 기쁨의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신체적 차원의 표현이다.”라고 언급한다.<sup>66</sup>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전존재를 드러야 한다. 즉 마음과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드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몸짓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손뼉을 치든지, 손을 들든지, 무릎을 꿇든지, 일어서든지 예배 가운데 우리의 동작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 춤이란 결국 그러한 개별적인 몸의 동작들을 예술적으로 의미 있게 조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몸짓으로서의 워십댄스는 나름대로 예배 안에서 정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춤은 보는 이들의 주의를 즉각적이고 강하게 끄는 힘이 있기 때문에 특히 예배 안에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되어야 한다. 즉 워십댄스는 그것이 표현하는 신앙적인 내용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회중의 관심과 주의가 모아지도록 하여 회중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야지 결코 춤추는 자가 관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의상이라든지 예술적 표현에 있어서 매우 신중해야 하며, 회중들의 일반적인 의식과 예술적인 감각 또는 수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다.

사실 예배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워십댄스가 허락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어떤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지역, 문화적 수준, 연령층, 시기 등 여러 요인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예배 안에서의 춤은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예술적이고 경건해야 한다. 프레임의 지적처럼, 우리는 현실 문화에서의 춤의 형태를 그저 단순히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성경적인 진리와 감정을 분명하게 표출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sup>67</sup> 그리고 만약 어떤 이유에서든 회중들의 정서상 워십댄스가 예배에

66 Frame,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200.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13에서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원리를 따라 그것을 삼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 5 결론 및 제언

역사적으로 개혁주의 예배는 시대적, 신학적, 문화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현재 많은 교회들이 “찬양과 경배”라는 형식을 부분적으로든 전체적으로든 예배에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예배 형식의 변화에 대해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규정하는 원리가 지켜지고 예배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개혁주의적인 관점에서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앞서 논의되었듯이, 찬양과 경배를 인도하는 평신도 찬양사역자에 대해서도 교회에서 상당한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여 예배의 한 부분을 맡겼다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예배 인도에서 음악적인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신앙적 성숙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예배 인도자가 성경적, 신학적, 목회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준비된 자이어야 한다는 지적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신앙적인 훈련이 부족한 찬양사역자 또는 예배 인도자에 대해 교회적으로, 그리고 교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필자는 중단기적인 면에서 각각 그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찬양사역자를 포함한 예배 인도자와 예배관련 사역자들<sup>68</sup>에 대한 재교육 내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그들을 교육

67 Frame,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200-201.

할 필요가 있다. 예배 인도는 교회 사역에 있어서 깊은 영성을 필요로 하는 매우 전문적이고 신학적이며 목회적인 영역이며,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러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제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교단 차원의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며, 개교회는 할 수 있는 대로 해당자들을 외부의 그러한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위탁하여 교육시켜야 한다.

둘째, 중장기적으로는 지교회에서 예배와 음악 사역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교회음악 지도자, 즉 음악목회자를 교단 차원에서 양성해야 한다. 필자가 미국에서 받은 교회음악과 음악목회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음악목회자 과정은 신학대학원 안에 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왜냐하면 교회에서의 음악 사역은 일반 음악활동과는 달리 영적이고 신앙적인 면이 더 중요하므로 신학적이고 목회적인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신학대학원에서 신학과 음악을 함께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또한 신학대학원에서 일반 목회자 후보생들처럼 목회자로서의 기본적인 훈련을 받아야 교회에서 전문적인 지도자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신학대학원 안에 음악목회자 과정을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몇몇 개신교 교단에서 하는 것처럼 직영 신학교에 교회음악 대학원을 설립하여 학부 과정과 연계하여 교단과 지교회의 필요에 맞는 교회음악 지도자 또는 음악목회자를 양성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문화적 상황과 사람들의 인식, 그리고 교회 현실은 이전과는 달리 매우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찬양사역과 워십댄스라는 개별적인 문제들뿐만 아니라 예배와 교회음악 분야와 관련된 제반 문제들에 대해

---

68 워십댄스를 하는 이들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총체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각 교단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결국 교회음악 지도자 또는 예배 인도자 교육,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음악목회자 양성이라는 교육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본다. 요컨대 예술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과 사명에 따라 그에 합당한 교육과 훈련을 시켜서 교회 현장에 내보낸다면, 대부분의 개별적이며 실제적인 문제들은 그들의 사역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의환 편역. 『개혁주의 신앙고백집』.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4.
- 신국원. “21세기 문화 속의 한국교회 예배 갱신[III]: 한국교회 예배의 ‘찬양음악’ 과 ‘하이테크 미디어’ 활용.” 『총신100만 연구논문집』 (2008): 326-363.
- \_\_\_\_\_. “21세기 문화와 예배 갱신: 현상적 특성과 신학적 기초.” 『신앙과 학문』 12 (2007. 4): 67-96.
- 아가페성경사전 편찬위원회 편. 『아가페 성경사전』. 서울: 아가페출판사, 1991.
- 하재송. “대중적인 교회음악: 복음성가와 CCM (1).” 『Choir & Organ』 103 (2009. 8): 46-49.
- \_\_\_\_\_. “대중적인 교회음악: 복음성가와 CCM (2).” 『Choir & Organ』 104 (2009. 9): 60-63.
- \_\_\_\_\_. “목회의 전문화에 따른 한국적 음악목회 방안.” 『교회를 위한 신학』 5 (2008): 141-185.
- \_\_\_\_\_. “찬양, 찬송, 찬양과 경배.” 『Choir & Organ』 101 (2009. 6): 58-61.
- \_\_\_\_\_. “칼빈의 교회음악 사상과 교회음악의 개혁주의적 원리.” 『총신대논총』 28 (2008): 466-495.
- 『표준예식서』 개정판.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993.
- 『헌법』 개정판.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00.
- Davies, J. G. “Dance, Liturgical.” In *The New Westminster Dictionary of Liturgy and Worship*, edited by J. G. Davi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6.
- Dawn, Marva J. *Reaching Out without Dumbing Down*.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5.
- De Jong, James A. *Into His Presence: Perspectives on Reformed Worship*. 황규일 역. 『개혁주의 예배』.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 Frame, John M. *Worship in Spirit and Truth*. 김광열 역.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0.
- Hustad, Donald P. *Jubilate II: Church Music in Worship and Renewal*. Carol Stream, IL: Hope Publishing Company, 1993.
- Kuyper, Abraham. *Lectures on Calvinism*. 박영남 역. 『칼빈주의』. 서울: 세종문화사, 1986.
- \_\_\_\_\_. *Our Worship*. Edited by Harry Boonstra.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9.
- Maxwell, William D. *A History of Christian Worship: An Outline of Its Development and Forms*. 정장복 역. 『예배의 발전과 그 형태』. 서울: 쿤란출판사, 1996.

- Meeter, H. Henry. *Calvinism*. 박윤선, 김진홍 공역. 『칼빈주의』.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86.
- Reynolds, William J. and Milburn Price. *A Survey of Christian Hymnody*. Carol Stream, IL: Hope Publishing Company, 1987.
- Rookmaaker, H. R. *Art Needs No Justification*. 김현수 역. 『기독교와 현대 예술』.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87.
- \_\_\_\_\_. *Modern Art and the Death of a Culture*. 김유리 역. 『현대예술과 문화의 죽음』.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3.
- Schaeffer, Francis A. *Art and the Bible*. 김진홍 역. 『예술과 성경』.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5.
- Sorge, Bob. *Exploring Worship: A Practical Guide to Praise and Worship*. 최혁 역. 『찬양으로 가슴 벅찬 예배』. 서울: 두란노, 1997.
- Taylor, Jack R. *The Hallelujah Factor*. 이석철 역. 『찬양 중에 거하시느 하나님』. 서울: 요단출판사, 1985.
- Webber, Robert E. ed. *The Complete Library of Christian Worship*. Vol. 1, *The Biblical Foundations of Christian Worship*. Peabody, MA: Hendrickson Publishers, 1993.
- \_\_\_\_\_. *The Complete Library of Christian Worship*. Vol. 4, *Music and the Arts in Christian Worship*. Peabody, MA: Hendrickson Publishers, 1994.
- White, James F. *Protestant Worship*. 김석한 역. 『개신교 예배』.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2.

## 국문초록

한국교회는 지난 20세기 말부터 예배 양식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다. 전통적인 예배형식이 깨어지고, “찬양과 경배,” “워십댄스”와 같이 현대문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예배 요소들이 예배에 도입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새로운 요소들은 교회사역 분야에서 신학적으로, 음악적으로, 목회적으로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개혁주의 신학은 예술을 포함하는 모든 것들(롬 11:36)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 이러한 신학적 관점에서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은 그들의 예술적 재능을 잘 사용하여 예술적 작품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들은 또한 복음의 능력으로 문화적 변혁을 이루고 그들의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예배는 성경에 기초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 성경에 규정된 예배의 요소들은 기도, 죄의 고백, 죄사함, 찬양, 설교, 세례, 교제 등이다. 성경에 명백히 언급되지 않은 다른 요소들에 관해서는 규정된 원리를 따르면서 예배에 그것들이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는 개혁주의 명제에서 보여지듯이, 예배의 형식, 순서, 구성요소, 양식에 있어서의 변화는 그것이 성경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건전하다면 허용된다.

따라서 “찬양과 경배”와 워십댄스는 그것들이 예배에 적합하다면 개혁주의 예배에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영적으로 그리고 음악적으로 자격을 갖춘 평신도가 찬양 또는 예배 인도자로서 봉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 강한 영성과 기독교 신앙이 음악적 재능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각 기독교 교단은 지역교회들을 위해 예술적으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교육하고 훈련하여 그들을 자격을 갖춘 음악 또는 예배 인도자로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주제어: 찬양과 경배, 워십 댄스, 개혁주의 예배, 현대 예배, 예배 인도자



## Praise Ministry and Worship Dance from the Perspective of Reformed Theology

Ha, Jae-Song  
Chongshin University

Korean churches have experienced significant changes in worship style since the last years of the 20th century. A traditional worship form was broken, and new worship elements reflecting contemporary culture such as “Praise and Worship” and “Worship Dance” have been introduced into the service. In this situation new worship elements have caused many theological, musical, and ministerial disputes in the field of church ministries.

Reformed theology aims to glorify God with “all things”(Rom. 11:36), including arts. From this theological viewpoint Christian artists should utilize their artistic talents well and glorify God with their artistic products. They should also strive to achieve cultural transformation by the power of the gospel and to reveal God’s glory through their service. In reformed theology, worship should be based on the Bible and presented to Go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orship elements prescribed in the Bible include prayer, confession of sins, absolution, praise, sermon, baptism, and fellowship. Regarding other elements which are not mentioned clearly in the Scriptures we have to follow the prescribed principle and judge their suitability to worship. As shown in the motto of reformed theology, “*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 some changes in the form, order, component, or style of worship are allowed as long as they are biblically and theologically sound.

Therefore, “praise and worship” and worship dance can be utilized in reformed worship when they are appropriate and effective. Also, a spiritually and musically qualified layperson can serve as a praise or worship leader. In this case, strong spirituality and Christian faith is much more important than musical talents. Each Christian denomination should endeavor to educate and train artistically talented people and to make them be qualified music or worship leaders for its local churches.

258 개혁논총

*Key Words* : Praise and Worship, Worship Dance, Reformed Worship, Contemporary Worship, Worship Leader